

# 21세기에 환생한 플라톤, 삶의 좌표 제시하다

## 플라톤, 구굴에 가다

리베카 골드스타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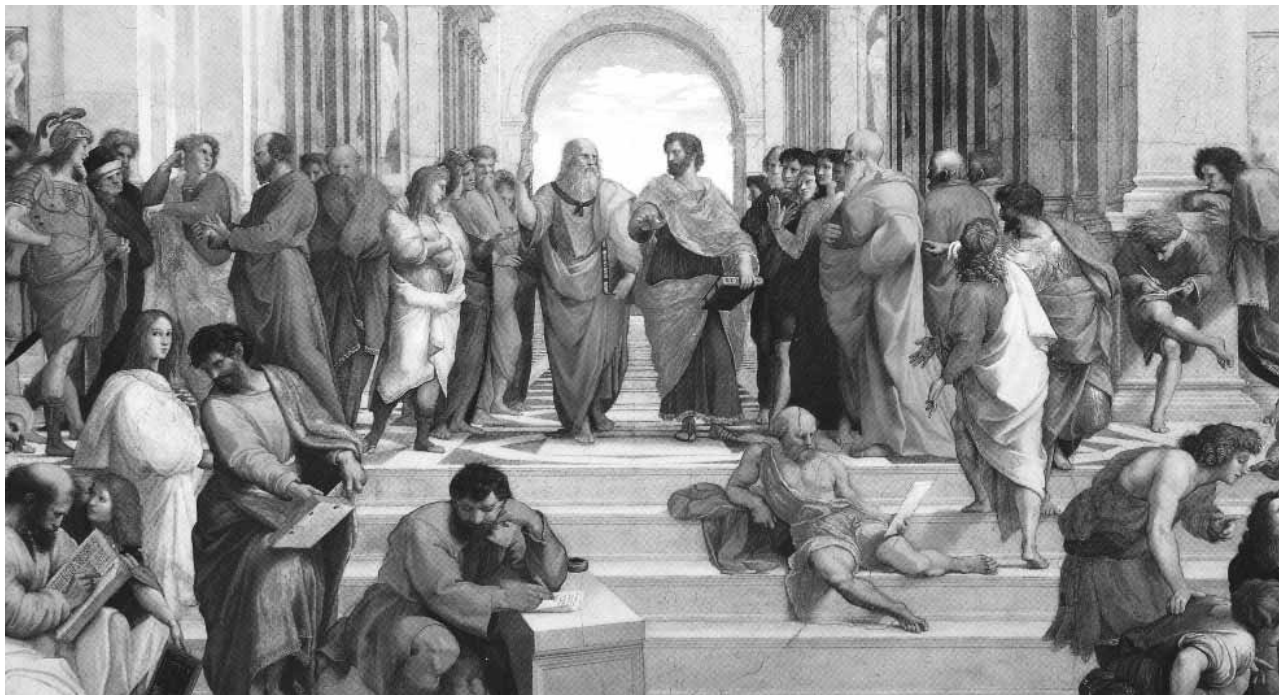
“유럽 철학의 전통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정의는, 그것이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각주(脚註)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고대 철학자 플라톤에 대해 남긴 찬사이다. 플라톤은 인류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400여년전 시대를 산 철학자인데도 ‘국가’ 등 그의 책은 지금도 끊임없이 읽히고 있다.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플라톤과 철학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최근 출간된 ‘플라톤, 구굴에 가다’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플라톤을 환생시켜 오늘의 과학문명속 인간의 존재를 되짚는다. ‘인공지능 시대, 철학의 의미를 묻는 최후의 대화편’이란 부제를 달았다. 저자인 리베카 골드스타인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국가인문학 훈장을 받은 철학자이자 소설가이다.

이 책은 오늘날 환생한 플라톤이 현대인과 만나는 대화편과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돼 있다.

플라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라라에 위치한 ‘구글 플렉스’(구글의 본사 건물들이 모여 있는 단지)를 방문하거나 연애상담을 하고, 케이블 뉴스에



플라톤이 현재 과학문명 시대에 환생한다면 ‘철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할까? 산치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중앙의 플라톤(왼쪽)은 하늘(이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땅(현실)에 철학적 바탕을 두었다.

출연하고, 자기공명 영상을 찍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400살 철학자가 키톤(아래위가 잇달린 고대 그리스의 웃) 대신 파란 수술복을 입고 자기공명 영상을 찍는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뇌 속을 훑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이다. 뇌과학자는 철학자에게 과학의 성과를 의시시킨다.

“뇌과학자들은 의식과 자유의지, 도덕성을 설명했고요. 이제 철학자들이 씨름할 문제는 뭐가 남았을까요?”(대학신경과학과 교수) 이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이렇다. “제 결정은 저의 의식이

내린 것이었지 도파민이 지배하는 뇌에서 내린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출간기념 강연회를 갖기 위해 ‘구글 플렉스’(구글의 본사 건물들이 모여 있는 단지)를 방문한 플라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과 ‘무엇이 가치있는 삶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세계의 모든 지식을 모은다’는 목표를 세운 메머드 기업은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윤리적 질문에 답이 나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플라톤은 “좋은 삶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철학자뿐”이라고 답한다.

고대 현자(賢者) 플라톤을 불러들여 영화 한 장면처럼 좌충우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면서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읽다 보면 고대 철학과 플라톤 사상에 대해 자유자재로 오가는 저자의 내공에 놀란다. 기계문명 속에서 인간 본성은 위협받기 쉽다. 철학 등 인문학은 ‘밤줄’ 역할을 못해 대학에서조차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밀한 논증과 유머를 곁들인 골드스타인의 플라톤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과학시대에 인간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독자들에게 안긴다.

〈민음사·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재산·지위 걸맞게 사회적 책임 다해야 상류

### 상류의 탄생

김명훈 지음



강경하다고 들린다면 주식을 팔고 빠지는 게 좋을 겁니다.”

회사가 이윤 추구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와 너무도 대비되는 대목이다.

재미 저술가 김명훈씨가 쓴 ‘상류의 탄생’은 번지르르한 풍요의 미국이 아닌 ‘전통과 이상과 명분을 지키는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다. 저자는 1974년 1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후 뉴욕에 40년째 거주하며 중앙일보 뉴욕 지사 기자, 미국 연방 공무원 등으로 일했다.

1부 ‘누가 상류인가?’에서는 계급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류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신의 재산과 지위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 있어야만 상류라고 말한다.

2부 ‘책임을 다 한다는 말’에서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미국의 상류 정신을 이야기한다. 레이건과 카터 등 역대 대통령의 사례, 철학이 있는 자본가와 정승같이 쓰는 부자들, 신뢰받는 언론, 교육의 본질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들려준다.

3부 ‘다르게 사는 방법’에서는 부모와 재산과 학벌에 의해 형성되는 고정된 계급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에 따른 유흥적 계급, 즉 ‘내면의 계급’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말하는 ‘내면의 계급’은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에서 언급한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돈을 살 수 없는 품계’로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비아북·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조선의 비행기, 다시 하늘을 날다=하늘을 최초로 난 비행기는 미국 라이트 형제가 만든 것이다. 하지만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1566~1624)가 만든 ‘비거’(飛車)는 300여년을 앞서 비행했다고 전해진다. ‘비거변증설’ 등 고문헌속 비거의 기록을 살펴며 미스테리한 날들의 존재를 세상에 내보인다. <사이언스북스·1만9500원〉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오늘’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들만 가려 뽑아 정리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민족과 내셔널리즘,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3가지 키워드로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통사적인 지식 없어도 세계사의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안내한다. 특히 각 장마다 핵심문제를 더욱 상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참고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의 아침·1만3000원〉

▲변방의 집, 창조의 공간=젊은 건축가인 저자는 구석진 자리에 놓여 있는 집들을 둘러보며 ‘오늘의 현대 건축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들을 던지고 있다. 이종섭의 제주도 초가 단칸방, 충남 홍성 밝담도서관의 마당, 목욕탕이 있는 안성 면민의 집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우리 건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과 현실, 일상에 치열하게 대면하는 ‘춧대있는 건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리·1만6000원〉

▲마지막 사랑노래=제주 출신 문충성(제주대 명예교수)의 사랑에 관한 시편들로 채워진 21번째 시집. 1977년 ‘문학과 지성’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아내와 어머니



를 향한 사랑과 고향인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표출했다. 동시에 상반된 날카로운 현실비판 인식을 드러내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랑과 낭만을 향해 나아가 힘을 역설한다. 바다와 무지개, 바람, 달빛과 같은 따뜻하고 친근한 시어들을 그리움이란 감정에 엮어 그가 끝내 채우지 못한 결핍과 갈망의 정서를 풀어놓았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가모기와 식당=음식을 소재로 추억을 더듬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니버시티 연작 소설. 요리사겸 탐정인 주인공은 의뢰인이 ‘추억의 음식’을 다시 먹여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세상을 뜬 아내가 만들어줬던 독배기 우동을 비롯해 비프 스프, 고등어 초밥, 돈가스, 나폴리탄, 고기감자조림 등 여섯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된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 누구나 한번쯤 ‘내 추억의 음식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학사상·1만3500원〉

## 어린이 책

▲엄마의 로봇=동시와 동화를 창작하는 최규순 작가의 두 번째 동시집으로 일상과 밀접한 소재들이 묘사돼 있다. 따뜻한 동심과 사실적 묘사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정겨운 이야기가 동화처럼 들어오는 느낌을 선사한다. 표제시 ‘엄마의 로봇’은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하는 대신 확연과 학습지로 내모는 어른들의 모습을 꼬집는다. <창개구리·1만원〉

▲뿔뿔! 무슨 일이야=빠둥빠둥 비키라고 소리치는 날엔 구구차,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는 용감한 소방차, 크고 무거운 짐을 실어 옮기는 힘센 트럭 등 모두 50대의 다양한 차들이 등장한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면처럼 연결돼 실제 길 위를 지나며 겪는 일처럼 생생하다. 온갖 자동차 50대와 별별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길벗어린이·1만1000원〉

▲무서운 꿈을 꿀 땐 어떻게 해요?=아이들이 4~7세에 이르면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종종 악몽을 경험하기도 한다. ‘무서운 꿈을 꿀 땐 어떻게 해요?’는 악몽으



로 괴로워하는 아이를 도와주는 책이다. 돌보미 누나인 마린은 주인공 레오에게 꿈속에 보이는 괴물은 절대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땐 날개가 있어서 맘대로 날 수 있다고 상상하라고 권유한다. <상상스쿨·1만원〉

▲동물나라의 디자이너 여우=제1회 비룡소 눈픽션상 수상작으로 동물 주인공을 통해 디자이너 무엇인지 호소력있게 전하는 책. 동물 나라의 유일한 디자이너 여우가 원숭이, 닭, 뱀, 나방, 매 등 여러 동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준다. 작가 이미영은 디자이너이자 디자이너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 책을 썼다. <비룡소·1만3000원〉

<p><b>노대지구 3층 상가건물매매</b></p> <p>노대동 광주은행 뒤편 코너자리</p> <p>◆ 토 251평, 건 431평</p> <p>◆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p> <p>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고급오피스텔 룸 - 13개)</p> <p>◆ 보 1억6천, 월 1,500만 (용 14억)</p> <p>□ 매가 → 28억</p> <p>010-6670-9800      010-7384-7800</p>		<p><b>법률경매</b></p> <p>(특수물건 추천)</p> <p>□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p> <p>→ 토 211평,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완비, 4차선 도로 접 → 법원포대 부근, 임대걱정 없음</p> <p>□ 감정가 19억 5천 - 최자가 13억 7천</p> <p>□ 남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p> <p>→ 토 66평, 건 18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71면제)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거리, 광고효과좋음</p> <p>□ 감정가 7억4천6백 - 최자가 5억9천7백</p> <p>□ 남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p> <p>→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완비</p> <p>□ 감정가 12억 - 최자가 8억5천</p> <p>□ 서구 화정동 (돔 나이트)</p> <p>→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터미널 앞, 나이트 운영</p> <p>□ 감정가 140억 - 최자가 50억</p> <p>□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p> <p>→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p> <p>□ 감정가 7억9천6백 - 최자가 5억5천7백</p>		<p><b>경매교육</b></p>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 매주 수요일 (오전)</p> <p>□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p> <p>☆ 경매 실전 교육 ☆</p> <p>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십시오!!</p> <p>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주) 대신경매</p> <p>직원구합니다.</p> <p>부동산, 경매 배우실분.</p> <p>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p> <p>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p> <p>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p> <p>062-511-7800      010-6670-9800</p>	
---	--	--	--	--	--